

간호대학생의 성격 유형,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재겸*, 김원중**, 김기용*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e-mail: jklee6907@kakao.com

Effect of Nursing Student's Personality Typ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ae-Kyeum Lee*, Won-Jong Kim**, Ki-Yong Kim*

*Dept. of Nursing, Gimcheon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격 유형과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대상은 G시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1개 대학에 재학중인 간호학과 학생들로 하였고, 자료 수집은 2022년 5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0.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Pearson's correlation,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3.61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준비행동은 평균 2.61점(4점 만점)이었다. 총 111명 중 D유형 성격 집단은 74명, D유형 성격이 아닌 집단은 37명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D유형 성격은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 모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D유형 성격 집단에서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28.8%의 설명력을 보였다. D유형 성격이 아닌 집단에서 학년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27.0%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면 진로준비행동을 고취시키기 위해 D유형 성격의 간호대학생을 위한 진로준비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며, D유형 성격이 아닌 집단을 위해 저학년 부터 다양한 진로준비 및 탐색 프로그램의 적용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1. 서론

대학생 시기는 사회인이 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배우는 준비기간으로 간호대학생은 이론교육과 교내실습 및 임상실습 등을 통해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간호사 국가고시 준비를 하게 된다. 이러한 간호학과와의 경우 비보건계열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아 타 학과에 비해 진로에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1] 학과에 입학한 후인 1,2학년에도 다양한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학생 개인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한다기보다는 병원 및 기관의 채용정보와 취업설명회 등에 의존하여 진로를 결정하며, 졸업학년이 되어서 진로준비를 급하게 하는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3]. 이러한 진로에 대한 준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졸업 후 취업하게 되었을 때 간호사라는 직종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동기부여의 부재로 인해 이직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4]. 이러한 이유로 간호대학생은 저학년부터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진로준비행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진로준비행동은 인간의 타고난 성격 유형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 진로를 준비하는 시기 등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는데[5], 성격 유형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성질이나 품성 또는 일관된 행동 양식을 말한다. 성격 유형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검사로는 MBTI, 에니어그램 등이 있지만, 최근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학과를 대상으로 D유형 성격(Distressed)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6, 7]. D유형 성격은 자기표현을 억제하려는 사회적 제한과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 성격 유형을 말하며 D유형 성격이 강할수록 근심과 걱정, 불안 및 우울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8].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으로서는 간호전문직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간호전문직관이란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신념과 관념 및 인상의 종합으로,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 및 간호활동 과정 등 간호직에 대한 직업의 견해를 말한다[9]. 간호사가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정립하였을 때 간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대상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어 간호대학생에게는 필수적으로 함양해야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간호전문직관이 올바르게 정립될 때 진로준비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고되어[10],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를 위해 간호전문직관 함양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위해 성격유형이나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함에도 불구하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D유형 성격과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D유형 성격의 분포도를 조사하여 성격 유형과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도 시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간호대학생이 의료 전문직으로서 우수한 간호 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격 유형,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2년 5월 6일부터 2022년 7월 20일까지 G시에 위치한 1개의 4년제 대학교의 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모집은 연구자가 연구목적과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자료 수집 도중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을 설명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대상자는 총 111명이었다.

2.3 연구도구

2.3.1 성격 유형

성격 유형은 Denollet (2005)이 개발한 D유형 성격 측정도구(Type D scale-14, DS14)를 Lim 등(2011)이 한국어로 수정번안한 한국판 D유형 성격 측정도구(The Korean Type D scale-14, the Korean DS14)[8] 14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부정적 정서' 7문항과 '사회적 억제'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정서는 시간과 상황에 관계없이 부정적 감정의 증가를 경험한 경향을 말하며 사회적 억제는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타인에게 거부당할 것 같은 잠재적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감정 및 행동 등의 표출 억제 경향을 말한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영역 모두 10점 이상일 경우에 D유형 성격이라고 분류한다. Denollet (2005)의 도구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부정적 정서 Cronbach's $\alpha = .88$, 사회적 억제 Cronbach's $\alpha =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는 부정적 정서 Cronbach's $\alpha = .84$, 사회적 억제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2.3.2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윤은자 등(2006)이 개발한 29문항을 한상숙 등(2008)[11]이 구성타당도 검증을 통해 축소한 18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전문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의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상숙 등(200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5$ 이었다.

2.3.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과 김계현 (1997)[12]이 개발한 도구로 16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봉환과 김계현 (1997)의 연구에서는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9$ 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0.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2) 간호대학생의 성격 유형, 간호전문직관 및 진로준비행동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3) 간호대학생의 성격 유형, 간호전문직관 및 진로준비행동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4) 간호대학생의 성격 유형, 간호전문직관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5)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2.5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만 설문지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중 언제든지 참여 중단의사를 밝힐 수 있음을 기술하였다. 작성된 설문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 어떠한 곳에도 사용하지 않음과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3년간 보관 후 폐기됨을 기술하였다. 참여 대상자에게 설문 후 소정의 상품권을 발송하였다.

Table 1. Personality typ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11)

Characteristics	Categories	Type D			X ² (p)	Nursing Professionalism Mean±SD	t or F(p)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an±SD	t or F(p)
		Total (n=111)	Type D (n=74)	Non-Type D (n=37)					
		N(%)	N(%)	N(%)					
Gender	Male	32(28.8)	23(20.7)	9(2.1)	.549	3.59±1.02	1.471	2.57±.52	3.143
	Female	79(71.2)	51(45.9)	28(25.2)	(.512)	3.82±.84	(.228)	2.76±.50	(.079)
Grade	1-year ^a	13(11.7)	8(7.2)	5(4.5)	1.359 (.715)	3.56±1.11	0.900 (.444)	2.34±.56	6.665 (<.001)
	2-year ^b	14(12.6)	11(9.9)	3(2.7)					
	3-year ^c	35(31.5)	24(21.6)	11(9.9)					
	4-year ^d	49(44.1)	31(27.9)	18(16.2)					
Religion	Yes	45(40.5)	28(25.2)	17(15.3)	.673	3.69±.90	0.345	2.85±.50	6.394
	No	66(59.5)	46(41.4)	20(18.0)	(.421)	3.79±.90	(.558)	2.60±.49	(.013)
Academic Performance (score)	4.0≤	13(11.7)	7(6.3)	6(5.4)	1.094 (.579)	4.00±.44	0.925 (.400)	2.80±.55	0.285 (.753)
	3.0~3.9	85(76.6)	58(52.3)	27(24.3)					
	2.9 이하	13(11.7)	9(8.1)	4(3.6)					
College Life Satisfaction	High	76(68.5)	47(42.3)	29(26.1)	2.687 (.261)	3.80±.93	0.472 (.625)	2.82±.48	6.929 (.001)
	Normal	32(28.8)	25(22.5)	7(6.3)					
	Low	3(2.7)	2(1.8)	1(0.9)					
major Satisfaction	High	84(75.7)	56(50.5)	28(25.2)	0.587 (.746)	3.89±.86	3.983 (.021)	2.81±.46	9.041 (<.001)
	Normal	23(20.7)	16(14.4)	7(6.3)					
	Low	4(3.6)	2(1.8)	2(1.8)					
Motive	Employment	39(35.1)	31(27.9)	8(7.2)	6.487 (.166)	3.66±.95	2.127 (.083)	2.56±.50	2.823 (.029)
	Values	15(13.5)	11(9.9)	4(3.6)					
	Aptitude	34(30.6)	18(16.2)	16(14.4)					
	stability	11(9.9)	7(6.3)	4(3.6)					
	Recommendation	12(10.8)	7(6.3)	5(4.5)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격 유형, 간호전문직관 및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성격 유형은 D유형 성격 집단은 74명, D유형 성격이 아닌 집단은 37명이었고, 간호전문직관은 전공만족도(F=3.983, p=.02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진로준비행동은 학년(F=6.665, p<.001), 종교유무(F=6.394, p=.013) 학교생활만족도(F=6.929, p=.001), 전공만족도(F=9.041, p<.001) 및 입학동기(F=2.823, p=.029)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1].

3.2 간호대학생의 성격 유형에 따른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의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D유형 성격 집단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61점이었고, 진로준비행동은 4점 만점에 평균 2.61점이었다. D유형 성격이 아닌 집단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4.03점이었으며, 진로준

비행동은 4점 만점에 평균 2.89점으로 나타났으며 성격 유형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7.835, p=.006)[Table 2].

Table 2. Differences i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s of Nursing Students (n=111)

Type	Nursing Professionalism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an	SD	t(p)	Mean	SD	t(p)
Type D	3.61	.93	5.580	2.61	.50	7.835
Non-Type D	4.03	.77	(0.20)	2.89	.47	(.006)

3.3 간호대학생의 성격 유형,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D유형 성격은 간호전문직관(r=-.259, p=.006)과, 진로준비행동(r=-.221, p=.020) 모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은 간호전문직관과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96, p=.039)[Table 3].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Type D	Nursing Professionalism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ype D	1		
Nursing Professionalism	-.259** (.006)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21* (.020)	.196* (.039)	1

3.4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대상자의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년, 종교유무, 학교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 입학동기와 상관분석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간호전문직관을 설정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분석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 2.405(Type D)와 1.833(Non-Type D)으로 2에 가깝고 0 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의 독립성을 만족하였다.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는 0.247~0.978로 1.0 이하의 값이었고, 분산팽창요인은 1.023~4.243으로 기준치인 10 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유형 성격의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beta=.352, p=.006$)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준비 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28.8%였다. D유형 성격이 아닌 집단의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beta=.594, p<.001$)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준비 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27.0%였다 [Table 4].

Table 4.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pec.	Type D					Non-Type D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884	.393		2.251	.028	2.796	.5614		4.554	<.001
Grade	.051	.054	.103	.955	.343	.269	.085	.594	3.304	.004
Religion	-.181	.103	-.176	-1.763	.082	-.171	.164	-.180	-1.041	.306
College life Satisfaction	.145	.110	.156	1.319	.192	-.195	.284	-.201	-.686	.498
major Satisfaction	.351	.124	.352	2.841	.006	.041	.240	.048	.169	.867
Motive	.064	.038	.172	1.701	.094	.005	.055	.014	.098	.923
Nursing Professionalism	.107	.057	.197	1.867	.066	-.017	.108	-.028	-.161	.873
F(p)	5.915(<.001)					3.221(.015)				
R ²	.346					.392				
Adjusted R ²	.288					.270				

4. 결론

본 연구의 결과에서 성격 유형과 간호전문직관 및 진로준비 행동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 특성에서 진로준비 행동은 학년과 종교유무, 학교생활만족

도, 전공만족도 및 입학 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D유형 성격 집단의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beta=.352, p=.006$)로 나타났으며 진로준비 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28.8%였다. D유형 성격이 아닌 집단의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학년($\beta=.594, p<.001$)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준비 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27.0%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진로준비 행동을 고취시키기 위해 D유형 성격의 간호대학생을 위한 학교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진로준비 지도 및 지원 마련이 필요하며, D유형 성격이 아닌 집단을 위해 저학년부터 다양한 진로준비 및 탐색 프로그램의 적용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김명아, 임지영, 김숙영, 김은정, 이종은, 고유경, “간호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제 13권 4호, pp. 383-391, 2004년
- [2] 이경아, 김진현,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몰입에 대한 인식”,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제 12권 1호, pp. 42-49, 2015년
- [3] 장태정, 문미경,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행정학회지, 제 22권 4호, pp. 344-352, 2016년
- [4] 임보미, 박종민, 김미진, 김수연, 맹정호, 이ური, 강경아, “종합병원근무 신규 간호사의 이직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제 24권 5호, pp. 313-322, 2015년.
- [5] 황완희, 배경의, “간호대학생의 성격유형과 진로의사결정 유형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제 3권 22호, pp. 1237-1258, 2017년
- [6] 김성렬, 김혜영, 강정희, “Type D 성격 유형에 따른 간호사의 공감 피로, 소진, 공감 만족 및 직무 스트레스”, 간호행정학회지, 제 20권 3호, pp. 272-280, 2014년
- [7] 노준희, 임은주, 정용선, “간호학전공 여대생의 D유형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제 14권 12호, pp.6265-6274, 2013년.
- [8] Denollet, J. “DS14: Standard assessment of negative affectivity, social inhibition, and Type D personality”, Psychosomatic Medicine, vol. 67, no. 1, pp. 89-97. 2005.
- [9] 윤은자, 권영미, 안옥희,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제 35권 6호, pp.1091-1100, 2005년.
- [10] 박수진, 박인숙,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제 11권 3호, pp. 67-87, 2021년
- [11] 한상숙, 김명희, 윤은경, “간호 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 14권 제1호, pp.73-79, 2008년
- [12] 김봉환, 김계현,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 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제 9권 1호, pp. 311-333, 1997년.